

사사기와 여호수아는 둘 다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, 그 보고에 큰 차이를 보인다. 여호수아에 따르면 신속한 ‘씩쓸이’ 정복이 있었던 반면,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다(1:19, 21, 27, 29, 30, 31, 33, 34). 신명기 사가의 영향을 받은 사사기는 실패의 이유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음(2:2)을 전면배치하지만, 그 이면에는 강력한 지도자의 부재(不在)와 함께 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, 이에 적합한 배경으로 유다를 부추긴다. 일종의 정치적/종교적 선전(propaganda)이라 할 수 있다.

A. 프로필

- 샛 2:10-23 는 배교, 징벌, 회개, 회복이라는 신명기 사관을 주제로 설치=> 사사 기간 중 반복적으로 일어남
- 옷니엘(유다; 3:7-11) => Paradigm, 간단명료
  - 배교(Apostasy). <sup>7</sup>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.
  - 징벌(Punishment). <sup>8</sup>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을 섬겼더니.
  - 회개(Repentance). <sup>9</sup>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.
  - 회복(Deliverance). <sup>10</sup> 여호와와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.
  - 반복 Repetition. <sup>11</sup> 그 땅이 태평한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더라.
- 에훗 (베냐민; 3:12-30)
  - 요단 동편 모압과 싸움
  - 속임수/원손잡이(3:15-16, 21).
- 드보라 (에브라임; 4-5 장)
  - 북쪽 하술의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움.
  - 리더쉽 문제. 스볼론과 납달리(4:6, 10).
    - ⇒ 드보라의 노래에는 에브라임, 베냐민, 마길(서편 므낫세), 스볼론, 잇사갈, 납달리 등 6개 부족만 동참(5:14, 18).
    - ⇒ 그러나, 르우벤, 길르앗(갓?), 단, 아셀 등은 참여하지 않음(5:16-17).
    - ⇒ 레위족속은 제외하더라도 유다, 시므온은?
- 기드온과 아비멜렉 (므낫세; 6-10 장)
  - 남쪽 미디안과 싸움. 므낫세 족속(6:15)
  -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방 바알신을 숭배(5:25). 또 다른 이름 여룹바알(6:32). 제단을 세웠을 뿐 아니라(6:24), 후에 금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에 올무가 되게 함(8:27).
  - 리더쉽 문제. 에브라임과 논쟁(8:1)
  - 세습제를 반대했지만(8:22-23),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(“내 아버지는 왕이다”; 8:31)이라 지음. => 집안 자손들 간의 싸움. 아비멜렉이 70 형제를 죽이고, 자신은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가 깨져 죽음.
- 입다 (길르앗; 11-12 장)
  - 출신: 기생(prostitute)의 아들(11:1, אִשָּׁה זָנָה)로 암몬과 전쟁.
  - 경솔한 맹세로 딸을 잃음=> 자식 희생제사(11:30-31)
  - 리더쉽 문제. 에브라임과 갈등, 전쟁(12:1), 42000 명 에브라임 사람이 죽음(십볼렛/십볼렛, שִׁבְלֵט, 발음을 못함=> שִׁבְלֵט)
- 삼손 (단; 13-16 장)
  - 블레셋 사람과 전쟁.

- 힘자랑(14:5-6, 19-20; 15:4): a type of person with lots of muscle but no brain (cf. commercial, "Twist to open")
- 여성편력: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(14:1-3); 창녀와 관계(16:1); 드릴라(Delilah)와 관계(16:4)
- Nazarene: no wine, no unclean food, no razor on the head (13:4-5 << 민 6:2-5)
- suicide (16:23-31)

#### B. 문제점

- "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였더라"(17:6; 18:1; 19:1; 21:25).
- 미가가 임의로 신상, 에봇, 드라빔을 만들고, 자기 집을 위해 제사장을 세움(17 장).
-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서, 신상, 에봇, 드라빔과 함께 제사장을 빼앗아 감(18 장)=> 샷 18:19-20.
- 베냐민과 다른 지파들 간의 전쟁
  - 레위사람, 예루살렘 첩
  - 베냐민 구역 기브아에 유숙.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(삼상 10:26)
  - 기브아 사람들이 폭행. (창세기 19 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유사). 레위인의 첩은 밤새 강간 당하고 다음날 아침 대문 앞에서 죽은 채로 발견.
  - 레위사람이 첩을 12 토막 내어 각 지파로 보냄. 베냐민과 전쟁(20 장). 600 명만 남고 전멸.
  - 야베스 길르앗 "거민, 부녀,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고"(21:10),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 인을 얻음. 이들을 베냐민의 남은 600 명에게 주고, 부족한 물량(?)은 스스로 포획하도록 묵인(21:20-21). => 야베스 길르앗과 사울의 관계(사무엘상 11 장).

#### C. 왕권의 필요성

- 요담의 비유(9:7-21). 누가 왕의 자리를 탐할까?
  - 감람나무, 무화과 나무, 포도 나무는 거절
  - 가시나무
- 유다
  -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?(1:1-2; 20:18). 유다(1:3-20), 베냐민(1:21) 보고서 내용.
  - 사상적/정치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간의 전쟁.

#### 결론

- 각 부족에서 뽑은 사사들의 지도력 부재 및 사회의 불안정 속에서 반항으로 들리는 왕권의 필요성 (17:6; 18:1; 19:1; 21:25)은 앞으로 진행될 왕권시대를 준비한다.
- 아울러 이 지도자는 유다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.

---

#### 생각해 보기

1. 레위인이 첩을 내놓은 것이나 주인이 자신의 처녀 딸을 내놓은 문제, 또 레위인이 시체를 토막내 부분에 대해 사사기 저자는 언급을 회피. 이처럼 사사기에서 도덕적 규범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. 그렇다면, 사사기에서 얻는 교훈은?
2. 구약을 왜 읽어야 하느냐고 묻는다. 어떻게 답할까?